

새 보금자리 찾는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그동안 시설노후로 불편을 겪었던 중앙 승가대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행)의 장애아동시설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기존 시설이 인근 부지로 터를 옮기고 승가원 서울 희망행복타운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승가원 장애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당초 중앙승가대 기숙사로 쓰여진 건물이다. 1970년대 지어졌으니 시설이 노후화된 건 당연지사. 건물 벽을 타고 종종 지사가 유입되기도 하고 배관누수, 결로현상 등도 골칫거리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수리에 나서지만 아이들 건강 걱정을 덜어 주지는 못한다.

낡아버린 건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75명에 달하는 아동들의 교육, 생활 공간으로 쓰기에 현재 건물은 좁고 불편하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이 없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보관할 공간마저 여의치 않다. 치료실 역시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봉사자들이 이동을 도와줘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승가원을 방문한 후원 가족들이 먼저 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나선다.

이처럼 승가원장애아동시설 환경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09년부터 승가원에서는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진행했다. 희망행복타운에 필요한 부지를 6년 동안 확보하고 건축설계를 의뢰한 후, 201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은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초 취임한 승가원 이사장 원행 스님 역시 건립사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지 매입 역시 원행 스님의 지시로 연초부터 진행 중이다.

매달 모이는 후원금 중 일부를 알뜰살뜰 적립한 덕에 현재 약 530여 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현재 대지와 비슷한 크기의 750평 확보를 목표로 나머지 220평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 중이다.

1970년대 건축...시설 노후화 물론

엘리베이터·휠체어·경사로 없어

2009년부터 인근으로 이전 계획

토지매입 진행 중...내년 착공 예정

건축설계 역시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아동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고층이 아닌 단층 건물을 계획 중이다.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과 문턱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린에너지 활용에 에너지절감역시 도모한다.

이를 위해 승가원 복지사들은 거리캠페인을 실시, 신규 후원가족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전체 1만4천명의 신규후원자중 78%에 해당하는 1만여명이 거리캠페인을 통해 모집됐을 만큼 복지사들의 열의가 남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는 계단이 난공불락이다. 1970년대 지어진 탓에 엘리베이터는 물론 경사로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가원은 인근 부지로 아동들의 보금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다르다. 이런 노력에 승가원에는 후원자들의 나뭇잎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80세가 되는 어르신은 용돈을 모아 5백만원을 전해주는가 하면 부부간, 모자간 사이종계 기부한 가족도 심심찮게 있다.

최근 일본에 거주하는 한 후원자는 승가원에 찾아와 1천만원을 후원했으며 한 사업가 역시 같은 금액을 기부한 후 승가원의 감사 인사마저 관찮다며 사양했다. 기금 모두 승가원 장애인들 위해 소중하게 사용돼 달라는 말 뿐이었다.

승가원측은 “장애아동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후원가족들 덕분에 희망행복타운 건립이 멀지 않았다”며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하고 있다.

“희망행복타운 건축을 필두로 장애인영양회 개최, 장애복지연구소 설립 등 장애인 관련 복지 법인으로 점차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는 승가원은 희망행복타운 건립에 뜻 있는 이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후원문의 1688-0750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뇌병변장애 9살 김윤호 어린이

생명나눔실천본부 8월 치료비 지원환자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지원환자로 선정된 김윤호 어린이는 목에 튜브를 꽂아 식사를 해야 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8월 치료비지원환자로 김윤호 어린이를 선정했다.

김군은 근육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호흡장애로 인한 가래 제거,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 교정도 수시로 뒤따라야 하지만 김군의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라 온전히 간호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일용직을 하는 아버지가 김군을 돌보고 있고 한 살 터울의 누나는 할머니가 맡아 기른다.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 증상이 완화된다면 사회복지시설로 갈 수 있는 희망도 있다. 그러나 일용직 수입으로는 병원비 감당이 안 되는 실정.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입원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언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할 지 김군 아버지는 오늘도 가슴을 졸인다. 후원계좌:농협 053-01-243778(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북새통 복지관...증축으로 노인편의 증대

강북복지관, 8월 27일 기념효잔치도



8월 27일 증축 완공식을 개최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조감도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이 신관 증축 사업을 거쳐 친환경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리모델링 및 증축에 나서 지상 4층, 연면적 638㎡ 규모의 복지관 신관 건물이 완공됐다.

배현진 기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하루 이용 인원은 1천200명 가량. 당초 5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졌던 터라 건물 증축 요구가 높았다.

서울시 역시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고 자 복지관 증축 공사에 착수,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측에 14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증축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5개 늘었고 탁구실, 바둑실, 휴게공간도 생겨났다.

복지관측은 이를 기념해 오는 8월 27일 어르신들의 상호간 결속력 증대 및 화합 도모를 위해 효잔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을 거쳐 방문 어르신들에게 1천명 분량의 짜장면을 제공한다. 지역 청년회와 소가 봉사봉사에 동참한다.

“사찰신도가 불교 사회복지 디딤돌 돼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자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사찰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자비나눔으로 함께하는 직할교구 불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불교자원봉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서울경기지역 직할교구 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8월 18일 인천불교회관, 20일 진관사에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화계사와 약수사에서는 지난 8월 12~13일 교육을 완료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이 ‘사찰의 사회적 역할과 자원봉사’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만들기’가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직원 강의로 이어진다.

교육 수료자 전원에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고, 참여사찰에는 ‘자비나눔실천도량’ 명패가 전달된다. 교육참여자 일정기간 활동과 교육을 이수하면 조계종 자원봉사단원으로 등록된다.

조계종복지재단에서는 전국 사찰 대상으로 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받은 사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봉사단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만들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은 “전국 사찰들이 나눔 실천을 통해 영

향력과 조직력을 갖춘 지역사회 소통을 활성화하고 불교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이 개최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야기되면서 기후변화시대 올바른 정책제시와 재난재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개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간의 문명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불교사회복지포럼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국내 사회복지계 학술연구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사회복지: 생태주의 관점에서의 전환’(한운우 교수, 강남대 사회복지학), ‘기후변화로 인한 천인재해 증가와 적응한계’(김지석 선임담당관,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참여형 재난구호체계 구축 방안’(성기환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발제가 이어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인간의 문명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신청 (02)723-5101

배현진 기자



더위 쫓으러 오세요!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원도) 앞마당에 야외수영장이 폭박 만들어졌다. 8월 5~7일까지 ‘청솔 물놀이수 축제’가 개막할 것이다. 뜻밖의 야외수영장에 신난 건 역시나 아이들. 더위에 지친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팔팔수로 열을 식혔다. 8000인의 팔팔수가 순식간에 매진됐다. 시원한 동네 잔치에 오랜만에 주민들 얼굴에 꽃이 폈다.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 자격과정 | 교육기간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 9주 과정 토요일 반 |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243-6333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고운사 특강

引之於有 一如用之而空
獲之於無 萬物承之而生
不知何以言之 強號之謂大乘

있다(有)는 것에 이끌어도 한결같은(一如) 그 쓰임이 공(空)과 같고, 없다(無)는 것을 얻어도 만물(萬物)이 그것을 타고 나오니(生), 알지 못함이라. 이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굳이 대승(大乘)이라 이름이니라.

大乘起信論 海東沙門 元曉 疏 본문 중에서



- 일시 : 2014년 8월 18일(월) ~ 8월 2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고운사 선 체험관
- 특강비 : 일십만원정 (₩100,000)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문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www.gosusa.net